

표현인문학 논쟁, 이렇게 본다

김치수
(이화여자대학교)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힘을 기울여 연구하고자 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었으며,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왜 그와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는 실용적인 학문이 젊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데 반하여 졸업 후 아무런 직장도 보장해 주지 않는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 학문은 대학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인문대학에 입학할 하면 인문학을 전공하고자 하지 않고 사법이나 행정고시 준비를 하거나 언론계의 입사시험을 준비하거나 통역사나 번역사가 되기 위해 어학 연수를 떠나거나 경영이나 재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대학이 교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종합적 사유와 창조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직업 훈련을 하는 학교로 전락하게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람다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사회구조의 변화는 부와 권력을 삶의 질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은 쓸데없는 한눈팔기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생존의 훌륭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인문학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고 인문학의 효용가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I

인문학 위기의 첫 번째 이유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과학의 성공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일상적 삶의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편의 위주로 안락한 삶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아온 인간

에게 공간 개념을 바꾸게 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보다 오래 누릴 수 있게 만든다. 게다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질적인 연구보다는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 욕망과 소유, 정보와 소통 분야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온다.

이 두 분야의 성공은 도구적이 아닌 인문학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한다면, 그것의 존재와 그것의 사용이 인류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하는 것은 인문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인문학은 거주장스럽고 시대에 뒤진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인문학이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것은 고전적 텍스트를 읽고 이해함으로써 획득한 교양과 비전에 의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질을 생각하고 사람다움의 참뜻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삶에서 힘과 속도와 편의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문학 자체의 유용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하여 인문학과 삶 사이의 괴리 현상을 가져오게 한다.

II

인문학은 물론 다른 과학도 모두 '삶'에 대한 추구이다. 자연과학이 자연 현상과 원리에 대한 앎을 추구하고 사회과학이 사회 현상과 원리에 대한 앎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인문학은 인간의 사유와 감각, 인간의 신념과 꿈을 표현하는 모든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삶의 현상과 있을 수 있는 삶에 대한 앎을 이룩하고자 한다. 법칙을 발견하여 그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과학의 속성이라면 인문학은 그러한 법칙이나 영향력이 인간과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사람다운 삶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속성이다. 따라서 전자가 앎의 목적에 대해서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반면에 후자는 반성적 사유의 자유로운 토론장으로서 기존의 믿음과 앎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탐구한다. 새로운 가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한편 부와 권력이라는 지배적 힘을 소유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고매한 인격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III

인문학은 신학과 문헌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으로 자리를 잡은 뒤 20세기에 들어와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아 고도로 전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의식의 발견으로 표현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언어의 공시성과 통시성, 계열성과 통합성으로 구조주의적 이론을 만들어낸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꿈꾸었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 등은 텍스트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 인문학을 '인문과학'으로까지 불릴 수 있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 사실은, 인문학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의 엄격성과 해석의 과학성을 확보, 전문화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이 세부적 전문화라는 과학적 유혹에 빠져 교양을 갖춘 전체적 시각을 잃어버리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인문학이 하나의 과학을 지향하면서 전문화된 사실은 인문학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약화시키고 취업의 보장 없이 전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옛날의 매력을 상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IV

최근에 와서 학제간의 연구가 권장되면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인문학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전문화된 인문학을 교양과 자기 완성의 도구로 삼아 확실한 진리의 개념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는 없다. 제도로서의 인문학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과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전문화된 지식을 전제로 가설을 내세우고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린 데 있다. 그리하여 전산 인문학, 영상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 등 무수한 전문 분야가 탄생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에 접근해야 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거대 담론의 붕괴로 이어지고 미세 담론이 대표적인 담론이 되고 거대 이론이 분화되고 의식이 분화되는 현상을 낳게 된다. 분석 정신이 강화됨으로써 미세한 이야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따라서 전체를 보는 인문학의 역할이 축소된다.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 상황은 '표현인문학' 논쟁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의 영상문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로 인해 현재는 보다 더 강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그것은 젊은 세대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대가 그 동안의 문자문화에 의존하던 기존의 관습을 버리고 영상문화에 경도되는 사실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논쟁의 전제 조건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과 방향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인문학으로서 표현인문학을 내세운 것은 디지털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인문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난 시대의 인문학을 ‘이해의 인문학’이라고 명명한 것은 인문학이 고전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인격도야에 만족했다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이탈리아의 휴머니스트들은 그리스 고전에서 언어와 행동의 모형을 찾고자 했고 그리하여 그리스의 고전을 근대어로 번역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인문주의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서 글쓰기의 전범을 배웠고 삶과 죽음의 방식을 배웠다. 그래서 토마스 만(Thomas Mann)같은 20세기의 작가는 “우리 인문주의자들은 모두 교육자적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인문주의자와 교사 사이에는 역사적 연관이 있으며 그것은 심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인문주의자는 교육자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의당 그리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미의 전통은 인문주의자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인문주의자가 교육적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미적 전통을 전수하는 것이 인문주의자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성장소설’로 번역된 독일어의 ‘빌둥스로망(Bildungsroman)’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 인문주의 정신의 표현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교양소설’이라고 번역되며, 따라서 ‘교양을 통해서 사람다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적 소설을 읽고 주인공의 성장하는 모습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인격을 갖춘다는 이러한 인문정신은 고전의 읽기를 통해서 자신의 교양을 갖추고 비판정신을 함양하여 자유의 확장에 이른다는 것이다. 고전을 읽음으로써 세계에 대한 물음과 기존의 지식에 대한 비판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의 확장에 이르는 인문학의 특성을 ‘이해의 인문학’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획득된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문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인문학은 적극적 자유의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자유의 확장이란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전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표현한다는 것은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나 문인 예술가에게 맡겨졌던 인문학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킴으로써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인문학'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고전 읽기의 인문학을 포기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인문학이 아니다. '표현인문학'은 '이해의 인문학'과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이 연구에서 대안적 진리론으로서 동양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 문맥적 인문학이나, 물음과 비판에 근거해서 합리성과 초합리성의 세계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비판인문학이나, 르네상스의 꿈과 문학적 꿈의 분석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상상력 인문학, 학문의 지향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개념적 인문학을 거론한 것은 그들의 인문학적 노력을 폄하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상호간에 상보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인문학이 새로운 인문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처럼 정보통신 분야가 발달하고 디지털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반성과 비판의 정신이 없으면 어떤 표현도 적극적인 자유의 확장으로서의 '사람다움'의 추구에 이를 수 없다. 그와 동시에 반성과 비판적 사유만으로 자기 표현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표현할 수 있는 정신의 충일 상태에 대한 철저한 의식도 있어야 하고 디지털 문화에 맞는 표현 도구에 대한 철저한 의식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인문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한 것은 달라진 인간 조건에 상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오늘의 현실에서 고전 읽기로서의 인문학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늘날 인문학은 사회 경제적 유용성으로도, 개인의 자기 완성의 효용성으로도 인식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고전을 읽으라고 강조하여도 읽는 사람이 없고,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고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고 그것을 읽는 시간이 다른 일을 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인문학자는 무협소설과 같은 대중소설을 읽는 것도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런 주장은 PC 문학의 독서도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PC 게임의 수행도 인문학적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낳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이 여가를 사용하는 놀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의 진정한 의미가 자아의 완성과 사람다움에 이르는 과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질문하고 비판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인문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런 깨달음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면, 우리의 연구에서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인문학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이다. 그것은 인문학의 관념적 성질보다 그 수행성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나를 아는 것과 만물을 아는 것이 맞물려 있다'라는 명제로부터 '나를 이루는 것과 만물을 이루는 것은 맞물려 있다'라는 명제로 생각의 전환을 이룩하고자 한 것은 수행성의 보편적 가치를 표현한 인문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표현인문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표현인문학'의 실천 방안에 대하여 공허하게 느끼고 그 개념적 정의를 미진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앞서 밝힌 표현인문학의 제안이 위기의 인문학에 어떤 탈출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연구에 보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과 조언이라고 생각된다. '표현인문학'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천년의 인문학의 전통으로 볼 때 이제 겨우 하나의 화두에 지나지 않는다. 문자에만 얽매일 수 없는 오늘의 인문학의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문학의 새로운 운명을 진지하게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울인 노력은 이제 그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